

전남 동부권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신

노관규 순천시장

정원 박람회 성공개최 준비 매진

“700년 순천 발전의 도약대가 될 ‘2013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박람회는 순천이 세계적 명품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도약하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같이 새해 포부를 밝혔다.

시는 오는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순천만 일원에서 ‘지구의 정원, 순천만’을 주제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주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옥천, 석현천, 해룡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장대공원 조성 등 진행중인 사업들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순천만과 동천을 중심으로 원도심, 신도심을 녹색공간으로 연결해 나가는 한편 전국 자전거 거점도시 달계 자전거 인프라를 높이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자전거 인프라 확충

현재 공사가 한창인 원도심내 문화건강센터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들도 새해에는 완료하고, 이 공간들과 순천만,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등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준비했다. 시민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도서관 도시가 되도록 다양한 시책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원순환센터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등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업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추진기로 한다.

노 시장은 “대부분의 선진국가나 도시들은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질적 성장을 우선하는 쪽으로 오래전부터 많은 변화를 준비했다”며 “순천도 떨지 않은 시간에 세계최고의 선진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여수 통합청사 신축 ‘없던일로’

김시장 “市 재정 빚더미…재임중 추진 불가능”

여수시 학동 용기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불거졌던 통합청사 신축은 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최근 “통합청사는 재원과 시민적 합의, 의회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 여수시는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만큼 통합청사는 물 건너 간 일”이라며 “용기공원은 박람회 개최 기간중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한 후 당초 목적대로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혀 통합청사 건립 불가 방침을 재확인 했다.

김 시장은 “박람회 기간중 절대 부

족한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한 용기공원 주차장 조성을 통합청사신축 포석 아니냐는 말을 들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현재 여수시는 빚더미 상태이고 의회동의도 쉽지 않아 재임중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시장은 통합청사 건립을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혀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예측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통합청사는 지난 1997년 여수시·여천시·여천군 등 3려가 주민발의로 통합하면서 통합조건으

팔색조 번식지 고흥 거금도 생태보전지역 고시



환경부는 6일 고흥군 금산면의 거금도 적대봉(해발 593m)~오전제 저수지 일대(8.365km)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팔색조와 삼광조는 제주와 남해안에서도 보전상태가 매우 양호한 숲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조류의 번식지인 거금도 적대봉 일대의 생태환경적 가치가 크다.

동부취재본부=주경희기자 gjju@

광양매실 명품화 올해 마무리 시, 2월중 보조사업자 선정

광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매실 명품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매실 보조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

광양시는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 검토와 현지 확인을 거쳐 2월중 광양매실 명품화사업추진단 위원회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매실관련 보조사업은 12개사·사업비 20억3200만원이다. 이중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광양매실 명품화사업에는 9개 사업에 13억2300만원이 투입된다.

광양시는 ▲매실체험 직거래장터 운영 ▲매실홍보관측 행사지원 ▲매실가공제품 판로개척 등 홍보관측 관련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30억원을 투입한 광양매실 명품화사업은 올해 마무리한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새얼굴

“독 높이기 조기 착공 지역경제 기여”

이강오 농어촌공구례지사장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농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농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이강오(57)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은 “4대강사업 일환인 문수·효곡제 독높이기 사업 등을 조기에 착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지연금 사업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구례 출신인 이 지사장은 지난 1990년 공채로 입사한 후 본사 사무과장, 경기도본부 총무과장,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 농지은행팀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박영희씨와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희기자 ik582@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신

윤승호 남원시장

지리산 시대 선도 ‘그린시티’ 도약

“새해는 화합과 소통으로 남원이 청정 지리산 시대를 선도하는 그린시티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승호 남원시장은 “올해는 민선 5기 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시장은 우선 시민경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유망 중소기업 유치,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육성 등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책도 올해 주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농업구조와 생산, 유통체계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경쟁력 있고 전문화, 특색화, 차별화 하는 전략을 수립한 후 ▲농업 전문인력 양성 ▲소득기반시설 확충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시행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시설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한 맞춤형 인재양성과 내실있는 지원으로 선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모두가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춘향제 대표축제 육성

춘향장화대기 다음을 오는 2014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며, 학교 무상급식 또한 친환경 쌀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장기요양 보험사업,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복지관을 완공해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갈 계획이다.

윤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는 소통과 친절봉사를 생활화 하겠다”며 “중앙정부와 소통체계를 원활히 해 지역현안 사업해결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전북

구제역·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되는데...

가축병 연구소 건립 ‘낮잠’

전문 시공사 없고 필름 예산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맡을 전북 지역의 연구소 건립사업은 줄줄이 지연되고 있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해말 준공 예정이었던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가 착공지연 등으로 준공일이 내년 이후로 늦춰졌다.

국비 361억원이 투입돼 전북대 익산캠퍼스에 건립되는 이 연구소는 당초 지난 2009년에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를 찾지 못해 지난해 3월야 착공했다.

여기에 정부가 올해 사업비 161억원 가운데 53억원만 책정해 내년 상반기 완공 계획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연구소는 200여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사람과 동물에 모두 전염되는 AI 등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연구와 치료법을 개발하는 곳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정읍, 동학 유적지 복원 등 선양사업 추진

“동학농민혁명의 고장” 정읍시가 올해로 혁명봉기 117년을 맞아 선양사업에 발 벗고 나선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진원지로서의 위상확립을 위해 이번 조각개편시 관광산업과 동학농민혁명 선양팀을 신설해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전문 동학관련 학자를 계약으로 선임 채용했다.

시는 전문인력을 활용해 지역에 산

재에 있는 유적지 복원정비와 다양한 선양 및 학술사업을 통해 혁명 발원지로서의 자긍심과 혁명 정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앞두고 황도현 전승기념일(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기섭기자 parks@

순창, 고령 농업인 농지연금제 시행

郡, 복지정책 확대

순창군이 올해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6일 순창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영유아 보육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를 위해 지난해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 중 시설이용 영유아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 ‘전국 제일의 장수고을’인 명성에 걸맞게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장수노인은 사망시 장제비를 94세까지는 100만원, 99세까지 150만원, 100세 이상은 200만원을 지급하며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물레방아 고드름 녹이는 동심

소한(小寒)인 6일 순창군 장류체험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얼어붙은 물레방아 앞에서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문을 연 순창 장류체험관은 다양한 장류요리 체험과 편성형 숙박시설로 인기를 얻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